

남원 레코드테크 구축

광한루원·예촌 주변... 기억·기록·차세대 기술 융합 근현대역사체험지구 조성

남원시는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주변에 69억을 투입해 기억과 기록 및 차세대 기술을 융합한 근현대역사체험지구 '남원레코드테크'를 2028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레코드테크는 담는다는 의미의 테크(lique)와 기술의 테크(tech)의 중의적 의미를 표현한 명칭으로 남원의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근현대기록관인 기존 '남원다움관'을 모태로 한다.

사업은 남원의 관광랜드마크인 광한루원·남원예촌·고생지구·남원읍성~민안의총·고동산성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에 총 3개동으로 △남원역사와 기록보존 통합아카이브인 기억동 △

지역기록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기술의 실내용콘텐츠 체험동 △남원역사와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로 즐기며 힘을 누리는 시민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팝업스토어 남원맛·다를 설치해 기존 광한루원 경의 상가의 남원특산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인스타그래머블 굿즈(Goods)를 판매, 남원방문객의 필수 쇼핑코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다움관은 2019년 남원시 금동158번지 일원에 개관한 라카비움 형태의 기록관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671.67㎡로 시민과 행정의 이야기를 전시와 체험으로 꾸며놓은 공간으로

남원 근현대기록 및 역사지료를 총체적으로 수집해왔다.

또한 사라지거나 원형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기억과 공간을 조사해 기록한 기록화 조사집(금동·동충동·죽향동·왕정동·노암동·동부권)을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원시 전역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남원의 기억을 기록 활용할 실감콘텐츠를 기획하여 3년 연속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우수콘텐츠상을 수상하는 등 남원역사 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순창군에서 18일부터 그라운드골프, 야구, 소프트테니스, 궁도 등 다채로운 생활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다채로운 생활스포츠대회 개최

순창군, 그라운드골프·야구·소프트테니스·궁도 등 잇따라 열려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순창군에서 18일부터 그라운드골프, 야구, 소프트테니스, 궁도 등 다채로운 생활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18일에는 제2회 강천신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순창군체육회(회장 양영수)가 주최하며 순창군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임춘기) 주관하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당초 영·호남 지역의 선수들로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 단위 대회로 개최하여 600여 명이 순창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19일, 20일, 28일, 30일간 열리는 제2회 강천신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는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며 순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화곤)가 주관한다. 경기는 팔덕다용도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전국에서 15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여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펼친다.

아울러 19일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22년 전국 소프트테니스 시군구 어르신 페스티벌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정인균)가 주최하고,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박경만)가 주관하는 대회로 개인전과 단체전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린다.

시군구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 클럽과 어르신 소프트테니스 교실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같은 날 육일장에서 열리는 2022 육일정 복원기념 임순남 궁도대회는 순창군체육회에서 주최하며 순창군궁도협회(회장 박정걸)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관내 규모로 치러지던 대회를 인접한 임실, 남원까지 확장해 임순남 최고의 시수가 누구인지 가리는 시합이 펼쳐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생활SOC 일환... 임실읍 행복누리원 '문 열다'

국·도비 등 총 120억원 투입... 행정·가족·체육센터 등 집적화

임실군이 국가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실읍 행복누리원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17일 심민군수와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김효진 임실경찰서장, 남공세창 임실교육지원청장, 이진산 농업중앙회 임실군지부장,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읍 행복누리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임실읍 행복누리원은 지난 2019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 3개부처 4개사업 국가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군은 임실읍사무소가 1985년에 건축돼 35년이 지나 노후화된 청사 이용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설계추진, 공사를 착공해 마침내 임실읍 행복누리원이 준공됐다.

임실읍 행복누리원은 국비 50억, 도비 3억, 군비 67억 등 총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생활SOC 사업으로 행정센터, 가족센터, 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4개 사업을 집적화한 사업이다.

행정센터는 군비 36억원을 투자해 1층에 읍사무소와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했다.

2층은 가족센터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18억 국·도비를 지원받아 복지사의 시각지대를 관리 상담할 수

있는 가족교육실, 상담실, 육아나눔센터, 언어학습실 등을 마련했다.

3층에는 체육센터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12억 국비를 지원받아 81면의 주거지 주차장을 확보해 인근 주거지 및 상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민군수는 "민선 7기에 계획하고 공모사업을 확정받아 마침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임실읍의 대표 상징인 행복누리원을 준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교육지원청, 농촌유학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순창군이 농촌 작은학교를 살리면서, 지역 인구증대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농촌유학 활성화에 나섰다.

순창군은 순창교육지원청과 함께 17일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과 농촌유학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항운 순창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교장 및 교직원, 읍면장, 군농촌유학 TF 부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군에서는 농촌유학을 위한 거주시설 마련과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유학생 모집 및 협력학교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농촌유학 합동 설명회에서는 올해 농촌유학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인제가 이루어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 학생 4명이 북동 동산초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홈스테이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체류형 거주시설 12가구, 홈스테이 3가구를 발굴하여 농촌유학을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김항운 교육장은 "농촌유학을 통해서 지역과 도시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 가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민체전 성공... 시민 성원에 감사"

양심목 남원시체육회장

양심목 남원시체육회장이 17일 오찬 기자회견을 열고 제59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성원과 함께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15년만에 남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3년째 준비하며 보다 알뜰하고 빈틈없이 개최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300억원 넘게 투자되며, 스포츠변방도시에서 스포츠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시민들의 희망인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을 2023년도에 정부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 남원을 스포츠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3천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대회를 매월 2회 이상 개최, 많은 인원의 전자훈련도 다양하게 유지하는 등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스포츠사업을 꽃피울 것을 약속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세계 60여개국에서 참여하게 되는 "월드드래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 등 위해 꿈나무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는 16일부터 집행부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 김정현 위원장은 시 화장품지원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낮음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을 당부했으며, 강인식 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의 비율 중 시내권의 숙원사업이 현저하게 낮음을 지적하며 시내권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요청했다.

순정열 의원은 지방교부세 관련 저소득층이나 노인일자리 등 삭감된 내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김길수 의원은 시가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어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사업 검토를 당부했다.

오동환 의원은 스마트 관광사업과 같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일가계산이 잘못된 경우를 대비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남원시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시민 무료상담과 함께 제도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지역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달 22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납세자 보호관과 지방세 담당자가 참여해 세금상담부터 납세자권리상담, 지방세 실무에 이르는 꼼꼼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는 마을세무사로 2명을 위촉, 상시 활동중으로 희망하는 시민은 이른속 세무사(죽향동 636-0780)와 김창열 세무사(향교동, 625-2200)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마을세무사'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제도' 등 시민을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